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7. 10. 25(수) / 총 1매(본문1)</b>
<b>담당부서</b>	<b>항공보안과</b>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김용원, 사무관 이한복, 주무관 김규희</li> <li>• ☎ (044) 201-4232, 4236, 4238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<b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
## **대한항공·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항공편은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보안질의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**

- 국토교통부는 10.26부터 시행되는 미국행 항공기 보안강화조치와 관련하여
  -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교통보안청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되면 설비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시행시기 연기를 신청하였고,
  - 미국 교통보안청은 의심승객을 발견하는 인력을 탑승구 앞에 배치하는 조건으로 발권 및 환승장의 보안질의는 내년부터 시행(대한항공 '18.2.20~, 아시아나항공 '18.4.24~)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.
  - 이와 관련, 시행시기 조정은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두 항공사의 미국행 항공기에만 적용된다.
- 다만, 외국항공사(델타항공, 유나이티드, 아메리칸, 싱가포르, 하와이안)와 저비용 항공사(제주항공, 진에어, 이스타, 티웨이, 에어서울, 에어부산)는 10.26일부터 계획대로 보안질의를 시행한다.
  - 또한 공항을 이용하는 미국행 승객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동일하게 공항에 도착하면 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이한복 사무관(☎ 044-201-42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